

생활협동운동의 문제와 방향

최종덕(상지대, 철학)

1. 협동운동의 의미와 당위성
 2. 기존 생활협동조합의 문제
 3. 원주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시공간적 장점
 4.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과 미래
- 부록 : 구체적 작은 제안들

1. 협동운동의 의미와 당위성

사상적 전환	서구 자본주의의 인간학적 배경이 되는 이기주의 모델의 한계
	인간 중심주의에 근거한 자연 착취 및 생명의 물질화 현상 극대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른 근대화의 허구



삶의 양식의 변화	산업사회의 부작용으로서 나타난 환경 파괴의 심각성
	무차별 경쟁논리에 침식당한 인간성, 그에 따른 인간 소외 확대
	약육강식의 사회적 양상에 따른 죽음의 논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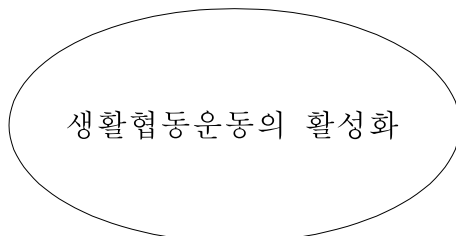
역사적 현실	지구 부존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방향 없는 소비주의의 부추김
	WTO로 위장된 세계시장 일원화로 드러난 강대국 중심의 경제제국주의 확장
	빈익빈 부익부의 중앙집중적 권력주의의 대형화 및 가속화



극복의 논리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작고 느리고 낮은 생태적 생활논리의 시대적 요청
	개인의 경쟁보다 공동의 협동이 더 많은 생산성과 더 높은 인간성 더 좋은 관계성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인식 필요
	중앙집중보다는 지역평형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살림의 논리 필요



구체적 대안	개인의 조화와 다양성을 포괄하는 공동체
	도시와 농촌의 협동적 생산-소비 체계
	먹거리와 생활경제 등의 의식주에 대한 생태적 순환 체계



2. 기존 생활협동조합의 문제

2.1 일반적 문제

조직의 문제	두레 개념의 공동 자산이 아닌 개인 이윤추구를 위한 금융자본의 확장에만 매몰
	사업의 규모에만 의존한 협동정신의 의미와 내용을 상실
	1차 생산자 이익보다는 자본 친화적 유통구조에만 지나치게 매달린 의존성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 부재
	주민의 진정한 공동이익보다는 조직이익을 우선하는 태도
	실제적 대안이 없이 타성적 직업논리에 의한 방만한 운영
전문성의 문제	경직된 일부 실무자들의 관료적 태도
	대중적 호응이 부족하고 단순한 당위성만을 반복하는 구태의연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개발 부족
사회적 문제	생명운동, 생태운동에 대하여 젊은 세대 유입이 가로막혀진 사회적 구조
	대도시 중심의 신권력 지향주의가 팽배
	생산과 소비의 유통 과정의 지나친 다단계 경로
	생태사회에 대한 미래적 안목 부재

2.2 원주 지역 협동단체의 문제점

생산/유통의 문제	생산과 소비 사이를 이어주는 자체적인 유통구조의 불균형
	배달제도의 심각한 취약성
	생협의 가공생산 체제와 자본형 공장생산 체제의 차이를 구분하는 의식 결여
	자체적인 순환형 지역유통 센터 부재
	영농조합을 통한 생산 및 가공에 대한 조직적 활성화 결여
소비자운동의 문제	순환적이고 생태적인 소비형태를 연구하는 소비자 지역 소모임 절대 부족
	소비와 생산 그리고 유통을 감시하는 지역 운동 결여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
활동 전문화의 문제	일부 단체 실무자들의 타성적 직업관
	생협 실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결여
	생태적 관심과 현장 활동 사이의 괴리
	실무활동가 및 단체 근무자에 대한 생활복지 여건 미흡
활동여건 기반의 문제	생명관련 단체와 사회관련 단체 간의 부조화
	생협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부족
	사회노동운동과 환경생태운동 사이의 심각한 갈등

3. 원주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시공간적 장점

정신적 기반
무위당 생명사상을 계승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시발지로서의 역사적 의미 부각
자생적인 지역의 생명/생태/여성/환경/의료 단체 활동 형성

상호적 장점
기존 민주화 운동단체의 다양한 활동가 존재
지역대학/시민대학으로서의 상지대학교의 생명자원 연구자 풀 구축
지역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들 간의 자연스런 연계적 시스템 확보

지정학적 장점
도농 결합형 지자체의 전형적인 기반을 구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의 수혜가능적 지역으로 부각
수도권 소비 권역과 강원 내륙의 생산 권역의 매개 중심
교통 중심지로서의 공간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
강원도의 청정 브랜드 활성화의 요지

4.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과 미래

타성적 운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실천적 대안 제시

- 생명운동을 대중적 문화운동으로 전환
- 생명운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문화운동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문화운동의 개념으로 발전
 - 활동가들의 문화의식 고양

통합적 생명 마스터플랜

- 지역의 생명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장기 생명계획 마스터 플랜 수립
- 지역대학의 생태지향적 특성화 프로그램, 협동조합 단체들 간의 공동중장기 계획, 기존의 생명의제 21 프로그램 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역 생명프로그램 제시
(예 : 원주한살림과 원주생협 간의 공동 유통망 형성, 영서 생태 유통 센터, 치악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그린 투어리즘의 협동적 설계)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

- 단체 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한 활동가를 위한 상호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활동교육 기관 설립
- 당위성에만 매달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 개발
- 생협단체들에서 참신한 젊은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 조성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친화프로그램

- 30-40년대생 선배와 50-60년대생 중견 활동가 및 70-80년대생 후배들 사이의 정신적 계승, 이론적 대화, 인간적 친화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 생명사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영성적 친화성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확산 필요
- 구체적인 협동적 삶과 자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존속하는 내면화된 생활방식의 나눔

부록 : 구체적 작은 제안들

1. 원주 한살림과 원주생협은 장기적으로 서로 합쳐지면 좋겠습니다.
2. 그 대신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청정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복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수도권 의존도를 점점 줄여 갈 수 있는 생산-소비-유통 신질서를 민학관 통합형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3. 진실된 협동운동만이 미래의 엄청난 자본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4. 중앙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지역의 주체적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원주의료생협은 일종의 원주 협동운동의 기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 잘 살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 강조해도 부족할 것 없이 정말 그렇습니다.
6. 여성과 아이들의 상징성은 진정한 평등사회를 향한 미래의 좌표이므로 민우회, 공동육아조합, 고교평준화의 초발심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7.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과 구체적인 실천을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8. 이런 기반작업을 시도할 지역협동사회연구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